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4.(일) 12:00
(지면) 2026. 6. 15.(월) 조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복 지원체계 발전 논의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6.1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15일(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26.6.15.(월) 14:00~16:00 / (장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지난해 대통령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이 함께한 간담회('25.7.)를 계기로, 정부는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건강·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기록하고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그간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민간 연구 및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피해자의 회복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재난·참사 회복 실태조사와 정부의 역할(국립재난안전연구원) ▲멈춰진 시간, 남겨진 과제: 오송참사 경험자의 정신건강 추적조사(충북대학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방안(충북참여연대)을 다룬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재난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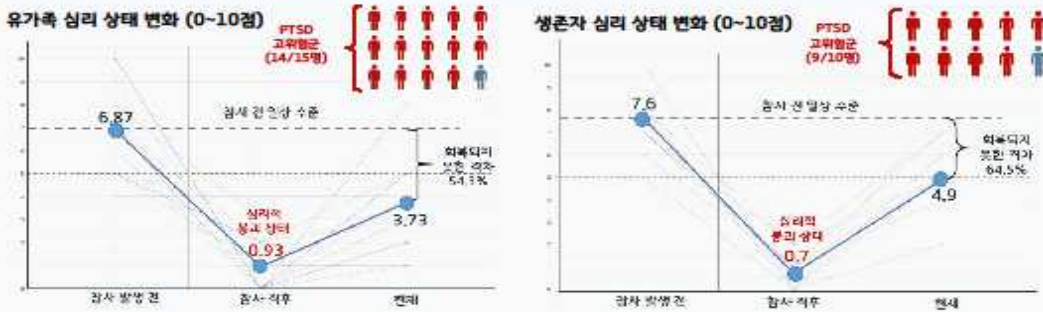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난피해자 회복 지원 정책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재난회복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상현 (052-928-8450)
		담당자	연구사	박정은 (052-928-8471)



'25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① 심리·신체·경제피해 회복 수준



참사 직후 심리상태는 심리적 붕괴 수준으로 급락, 일부 회복되었지만 미회복 격차는 여전



PTSD 고위험군 90%이상, 신체화 반응 진행
몸과 마음에 남은 참사,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 동반

경제적 회복 수준 78%, 적극적 회복활동 곤란

경제적 회복의 정체, 휴직·퇴사, 소득의 공백, 멈춰버린 생업



② 피해자 회복 관련 요인

회복을 돕는 요인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



③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의미



“고인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상태”

고인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



“잊혀지지 않는 참사의 기억을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숙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상태